

## 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## 일본 손보업계, 자동차보험료 재인상 움직임

- 일본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도쿄해상니치도(東京海上日動)화재보험(이하 도쿄해상)이 작년에 이어 올해 7월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.3% 재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보험료 인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.
  - 도쿄해상은 작년 7월 약 7년 만에 평균 1.5% 보험료를 인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함.
  - 또한 최근 몇 년간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았던 닛세이동화(日生同和)손해보험도 올해 6월에 평균 2.6% 정도 인상할 것으로 알려짐.
  - 작년에는 업계 3위인 손해보험재팬이 4월에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.5%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이 7월에 1.0%, 아이오이(あいおい)손해보험과 일본고아(日本興亜)손해보험도 12월에 각각 1.5%와 1.9% 보험료 인상을 단행한 바 있음.
  - 업계에서는 이번 도쿄해상의 자동차보험료 재인상을 시발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이 손보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- 자동차 판매대수 급감으로 자동차보험 신규계약 건수가 줄어들면서 보험료 수입 감소가 고스란히 회사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번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임.
  - 업계는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로 경기위축이 심화되면서 손해보험사의 주요 수입원인 자동차보험의 시스템 관련 비용 증가와 보험금 지불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.
  -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오히려 인하해 주거나 한층 강화된 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계의 우량고객 확보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.

(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 홈페이지, 일경신문 3/29, 요미우리신문 3/27)